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 비교 분석*

정희옥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연구는 무슬림(muslim)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인들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주제는 첫째, 무슬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둘째, 서방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무슬림 연구의 제한성, 셋째, 21세기 아시아가 당연한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무슬림 이슈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2010년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세계 태도 조사(Global Attitudes Survey)'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반(反)이슬람 감정이 서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 서구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무슬림을 싫어한다는 응답이 60%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세 나라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슬림에 대한 태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갖는 세 나라에서도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만이 박탈이론의 적실성이 발견되었으나, 중국과 일본 내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인식은 서로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종교 변수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무슬림에 대한 태도가 아시아의 세 나라 간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무슬림, 무슬림에 대한 태도, 한국, 중국, 일본, 이슬람

* 본 논문은 포스코청암재단 아시아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하였음

I. 서론

본 연구는 무슬림(muslim)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인들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주제는 첫째, 무슬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둘째, 서방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무슬림 연구의 제한성, 셋째, 21세기 아시아가 당면한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무슬림 이슈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슬람교는 코란을 기반으로 하여 알라를 믿는 유일신 종교이며 그리스도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에 속한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들을 일컫는 무슬림 인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이슬람교는 2010년 기준 세계인구의 23.2%(약 16억 명)을 차지하여 31.5%(약 29억 명)인 기독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종교이다. 2012 숫자는 2050년에 세계인구의 30%인 28억 명에 달하여 기독교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ipka and Hackett, 2015).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이 알카에다 집단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와 런던 폭탄 테러, 2005년 파리 교외 무슬림 주요 거주지역에서의 대규모 폭동, 덴마크의 무슬림 관련 만화 논쟁,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파리 도심 테러, 그리고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s, IS)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슬림에 대한 정보는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비서구 국가에도 신속히 전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Elchardus and Spruyt, 2014; Kalkan et al., 2009; Kunovich,

2004; Nisbet et al., 2009; Strabac and Lishaug, 2008; Stolz, 2005; Wike and Grim, 2010). 예를 들어, 코노비치(Kunovich, 2004)는 반(反) 이슬람 편견이 동유럽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동유럽의 가난한 경제 상황, 빈약한 민주적 전통과 관용의 부족을 주장했다. 한편 스토즈(Stolz, 2005)는 스위스 취리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행태적, 감정적, 인식적 영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니스벳 외(Nisbet et al., 2009)는 미국에서 무슬림-아메리칸(Muslim-American)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11 테러 직후보다 2006년 이라크 분쟁 이후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칼칸 외(Kalkan et al., 2009)는 미국인은 무슬림에 대해 종교적 소수자 집단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문화적 소수자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반 이슬람 정서 및 무슬림에 대한 편견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지만 주로 서방국가 즉, 미국과 유럽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몇몇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에 대한 태도는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달라질 수 있다(Kunovich, 2004; Kalkan et al., 2009; Strabac and Lishaug, 2008; Taras, 2013). 코노비치(Kunovich, 2004)는 같은 유럽국가 내에서도 서유럽보다는 동유럽이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반 무슬림 태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비 서구국가 지역에서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근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본 연구는 비 서구국가인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나라의 시민들이 무슬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중국·일본의 무슬림 현황 및 관련 연구

무슬림은 세계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인 비서구국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주요 종교로 가지지 않고, 서구와는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¹ 61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9억 8,553만 명으로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의 약 62%를 구성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2억 300만 명), 파키스탄(1억 7,400만 명), 인도(1억 6,100만 명), 방글라데시(1억 4,500만 명), 이란(7,480만 명), 터키(7,460만 명) 순이며 이 여섯 나라들에 거주하는 무슬림 총 수는 아시아 내 무슬림 인구의 약 85%이자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53%에 달한다(Pew Research Center, 2009).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무슬림이 주로 거주하는 국가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인 중동 지역에 속해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무슬림은 주요 거대 종교이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태도와 정서를 연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국가 중 무슬림이 전체 인구 대비 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무슬림 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슬림이 증가할 경우 문화적으로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국가로서 한국, 중국,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은 근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종적(ethnic)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타 집단(out-group)에 대한 관용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

1. 아시아 뒤를 이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3억 17만 명,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2억 4,811만 명, 그리고 유럽에 4,349만 명이 거주한다.

〈표 1〉 국가별 인종적 관용 정도

응답비율	해당 국가
0-4.9%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웨덴, 노르웨이, 라트비아
5-9.9%	독일, 스페인, 멕시코, 칠레, 페루, 남아공, 파키스탄, 벨라루스
10-14.9%	이탈리아, 핀란드, 우크라이나, 일본 , 폴란드, 체코
15-19.9%	러시아, 중국 ,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20-29.9%	프랑스, 알제리, 모로코, 타이, 터키, 불가리아, 잠비아
30-39.9%	한국 , 이집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트남, 알바니아
40% 이상	인도, 요르단, 방글라데시

자료: Max Fisher. 2013. "A Fascinating Map of the World's Most and Least racially Tolerant Countries". *The Washington Post* (May 15).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3/05/15/a-fascinating-map-of-the-worlds-most-and-least-racially-tolerant-countries/>(검색일: 2016.01.10)

출처: 이우주현. 2013.

참고: 퍼센트는 "이웃이 되길 원하지 않는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 '다른 인종'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명시함. 퍼센트가 낮을수록 인종적 관용이 높음을 나타냄.

워싱턴 포스트가 2013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를 사용하여 국가별 인종적 관용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일본이 다른 인종에 대한 관용도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중국과 한국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관용도를 보인 한국은 30~39.9%의 사람들이 다른 인종과는 이웃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국과 최대 약 20%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의 인종적 관용도가 낮았으며, 한·중·일 3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렇듯 세 국가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역사상 상호 적지 않은 교류를 하고 있으나 다른 집단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서로 간에 다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무슬림에 대한 태도 연구를 비교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통해 한·중·일 간의 의미 있는 차이점 및 유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개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료의 존재 유무도 세 분석 대상 국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음을 밝힌다.

1) 한국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2008)에 따르면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 세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한반도에는 9세기경에 주로 중국에서 문화와 교역상품을 전하던 페르시아계 무슬림들이 남방항로를 통해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9세기부터 한국의 무슬림은 존재했으나 15세기경 조선의 유교사상에 의해 이슬람 문화와 종교는 한국에서 배척되어 왔다(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8). 한동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 제6사단의 사령부 이맘(Imam)이었던 압둘 가푸르 카라이스 마일오물루(Abdulgafur Karaismailolu)의 노력으로 인해 한국 내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8). 이후 1970-1980년대에 이슬람은 무슬림 성원 건립을 증가시키며 정착해왔고,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무슬림은 무슬림 내에서의 세대 교체, 이주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권지윤, 2009).

한국은 불교, 기독교,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무슬림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개된 자료들마다 다소 상이하게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철 외(2011)는 전체 이슬람 신자 수를 13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안정국(2015)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2009년 이주 무슬림의 수를 약 79,388명, 2011년 약 92,059명, 2013년 약 108,147명, 2015년 약 135,58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무슬림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한국 내 이슬람교 성원은 부산, 경기광주, 전주, 안양, 부평 등 13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국 내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나 소수의 연구가 한국인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 및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았다(김수완, 2016; 이희수, 2006; 안정국, 2012 조희선 외, 2010; 지중화, 2011). 이희수(2006)는 9.11 테러를 기점으로 이슬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9.11 테러 이후 미국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슬람의 입장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반미주의 성향 강화, 이슬람에 대한 동정, 이슬람과 관련된 강좌 개설 등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희수, 2006). 또한 무슬림 2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조희선 외(2010)의 연구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와 혐오감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슬람 관련 지식인 혹은 전공자가 이슬람에 대해 긍정적이며 개신교 신자일수록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되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이노미(2010)는 국내 거주 무슬림 유학생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경험한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무슬림 유학생들은 한국인의 종교적 편견과 무지, 잘못된 정보, 비논리적 개종권유, 권위적이고 사적인 질문에 의해 불쾌감과 차별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종화(2011)는 한국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수용의식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무슬림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무슬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문화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거주 무슬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주 무슬림의 전체적인 현황과 변화, 국내의 인식,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살펴본 안정국(2012)의 연구 역시 국내에서 무슬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이주 무슬림과 무슬림 2세들의 일부는 한국사회로 동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복장, 음식, 한국식 의례, 종교 생활, 국내법 등의 부분에서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인들의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조사한 김수완(2016)은 한국인의 아랍과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는 '테러', 분쟁'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동시에 '깊은 신앙심'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

2.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이 한국에 대해 갖는 태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조희선(2008)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주목하며, 무슬림들의 현황과 적응, 신앙생활과 조직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을 선택한 이유, 학력과 직업, 생활조건, 적응도 등에서 화이트 칼라 무슬림과 블루 칼라 무슬림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에 거주한 이후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

중국은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이슬람 지역과 관계를 맺어왔으므로 이슬람을 종교보다는 문화코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하여 각 소수민족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할 수 있다(최재훈, 2011). 프란켈(Frankel, 2016)은 중국의 무슬림이 다른 서구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보다 많으며, 무슬림들은 서구 국가보다 중국에서 훨씬 오래 살아 왔으며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관계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중국 내 무슬림 총 인구수는 출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CIA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중국 내 약 13억 7,000만 명의 인구 중 약 1.8%가 무슬림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 내 무슬림의 비공식적인 추정치는 50~100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CIA Factbook의 전체 무슬림 추정치(1.8%)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전체 이슬람 인구는 2천만에서 2천 5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Frankel, 2016).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중국의 이슬람교도는 55개의 소수민족 중에 10개를 포함하며, 이 10개의 무슬림 소수 민족은 후이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즈족, 우즈베크족, 타타르족, 살라르족, 보난족, 동샹족 및 타직족이다(Frankel, 2016).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무슬림 집단은 후이족, 즉 회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중국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9개의 민족은 주로 중국의 북서지역 신장, 위구르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병하, 2013).

회족 무슬림의 경우 다른 무슬림 민족 집단과는 달리 중국 내 가장 큰 민족인 한족의 문화 및 공동체와 상당 부분 동화되어있으며 종교적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회족 다음으로 큰 민족 집단이며 신장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은 현재 정부로부터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황병하, 2013). 위구르족뿐만 아니라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이나 한족들과 함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은 여전히 중국 정부나 한족들로부터 이슬람에서 금지된 돼지고기나 술의 식음을 강요당하는 등의 종교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탄압을 당하고 있다(황병하, 2013).

중국인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기존의 연구들은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무슬림으로 구성된 소수 민족 일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추아(Chuah, 2004)는 중국의 한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 집단인 후이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후이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두 민족 간의 평화적인 공존 단계, 박해와 억압의 강화, 이로 인한 후이족의 저항의 측면과 후이족의 현 상황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후이족은 대부분의 상황을 수용하지만 수용하기 힘든 차별이 존재 할 때 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여전히 중국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소외 집단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Chuah, 2004).

또한 황병하(2009)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 정부의 대 이슬람정책과 위구르인들의 중국 저항운동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족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인식, 위구르 무슬림들의 한족 문화 수용 정도 및 중국의 대 이슬람 정책을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위한 정책 하에서 이슬람을 용인하였으나 중국 무슬림들은 이러한 종교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중국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경멸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은 한족 문화에 동화된 무슬림에게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병하(2013)의 또 다른 연구는 중국 내 이슬람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중국의 이슬람 역사, 중국 정부의 대 이슬람 정책과 종교적, 문화적 탄압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내 이슬람들은 이슬람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권 탄압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족과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중국의 한족들은 중국 내 이슬람 자체를 부정하는 등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무슬림들이 자녀들을 무슬림 학교로 진학시키는 등 자발적으로 이슬람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이슬람의 미래가 결코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전망한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정체성 등을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국

민통합 정책과 신장 위구르족의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본 송한용(2013)은 중국정부의 통합정책으로 인한 통제는 위구르족 내 위기감을 야기하여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신장에서의 민족적 충돌이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병하(2010)는 중국 내 가장 큰 무슬림 민족 집단인 위구르족과 회족의 위상과 역할, 중국의 한족 문화 동화정책과 그 대응을 고찰하였다. 저자는 중국 정부가 이슬람에 대해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내 무슬림들은 자녀들을 모스크 소속 마드라사(학교)에 보내는 등 이슬람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왔으며, 중국 정부의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여전히 회족과 위구르족을 무슬림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저자는 한족의 관습과는 전혀 다른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중국문화로 동화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3) 일본

2015년 종교시보(宗務時報)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한 외국인 무슬림이 약 10만 명이고 그들의 배우자인 일본인 무슬림과 다른 일본인 무슬림을 합치면 일본 내 무슬림 인구는 약 11만 명일 것으로 추정하였다(文化庁 文化部 宗務課, 2015). 한편 와세다 대학에서 2013년 발표한 이슬람교도 인구 추계(イスラーム教徒人口の推計)에 따르면 2011년 발행된 퓨 리서치 센터의 추계에 근거하여 2010년의 일본에 체류 무슬림 인구를 약 18만 5천명, 전체 인구의 0.1%로 보고 있다. 같은 추계에서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무슬림을 88,937명, 무슬림의 배우자인 일본인을 7,622명, 불법 체류 무슬림을 2,566명으로 보고 이 모두를 합계하여 일본에 체류하는 무슬림 인구를 101,37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店田 廣文, 2013).

일본 사회에서 무슬림이 화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무슬림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 산업에서의 할랄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동의 무장 등의 보도에 의해 재차 일본사회도 이슬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文化庁 文化部 宗務課, 2015). 일본의 이슬람과 아랍, 중동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 말 ‘이슬람 연구의 제1의 봄’, 1973

년의 오일 쇼크로 인한 '제2의 봄',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제3의 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관광 입국 정책에 의한 방일 무슬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할랄 인증 등에 관한 '제4의 봄'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 봄이 이슬람, 아랍, 중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것은 사실이나 일본 사회 전체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文化庁 文化部 宗務課, 2015).

일본 내 무슬림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 역시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부정적이다. 펜(Penn, 2008)은 무슬림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일본인은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이며, 다수의 일본인들은 이슬람을 보편적인 종교라기보다는 다른 민족의 상이한 문화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이민정책과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차별에 대해 무슬림 이민자들을 사례로 살펴본 베스트레(Vestre, 2011)의 연구에서 역시 일본 내 무슬림 이민자들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디아(Fathiah, 2011)는 서구 국가들에서 일어난 테러와 반 이슬람교 정책들이 일본과 한국 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무슬림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현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사례분석과 실험조사를 진행한 이즈미(Izumi, 2015)의 연구에서 역시 일본인들은 다른 종교에 비해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는 오일쇼크와 미디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즈미(Izumi, 2015)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슬람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 공유와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일본 내 무슬림에 집중하여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히데키(Hideki, 2007)는 일본 내 무슬림들을 위한 교육 환경과 교육 기관의 내부 발전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수자로서 무슬림에게 필요한 교육적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무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줄 교육이 필요하며, 학생과 교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과 무슬림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아니스(Anis, 1998)는 일본은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문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슬람교도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일본인들의 편견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소수 무슬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무슬림에 대한 태도는 사회심리적 및 경제적 요인과 종교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탈이론이라 지칭되는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중점을 두어 현지인들은 이주자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tolz, 2005). 박탈이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외(Dollard et al., 1939)는 모든 공격적인 행동은 좌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러한 좌절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겪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소외 계층의 경우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타 집단에게 표출하게 된다(Dollard et al., 1939). 따라서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 주장하였다(Ciftci, 2012; Johnson, 1992; Slade, 1981; Zainiddinov, 2013).

사회심리적·경제적 요인들이 아시아의 세 나라 국민들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적실성이 있을 것인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서구국가에 대한 잇따른 테러는 비 서구국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2016년 1월 14일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는 아시아 지역 첫 이슬람국가 연계세력의 테러로서 이제 아시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19세의 김 모 군이 터키에서 시리아를 통해 이슬람국가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이슬람국가에 의해 자국민 인질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두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2015년 2월 이슬람 국가는 일본 인질 2명을 살해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기관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이세원, 2015). 중국 역시 2015년 11월 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국가가 중국인 인질을 살해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테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성연철, 2015).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 중국,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와 좌절을 배출하는 대상으로서 무슬림을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관련 사건들은 서구 국가만큼의 대규모 위협은 아니었으므로 이들 나라 시민들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박탈이론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무슬림에 대한 태도 연구는 종교 집단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진 종교도 무슬림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종교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Allport and Kramer, 1946; Beatty and Walter, 1984; Edgell et al., 2006; Hood et al., 1996; Nunn et al., 1978; Stouffer, 1955), 종교가 타 집단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한다고 한다는 주장, 종교에 대한 헌신이 오히려 소수집단에 대한 불관용적 편견을 야기한다는 주장, 그리고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소수자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주장 등 매우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한·중·일 사회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한국은 불교신자가 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개신교가 21%로 바짝 뒤따랐다. 중국은 300개 이상의 민속 종교가 존재하는 다종교사회로 최대 종교는 민속종교(21.9%)이며 다음으로는 불교(18.2%) 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민속종교인 신도(神道)를 같이 믿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신도를 믿는 인구가 8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눈 여겨 볼 점은 한국과 중국에서 50% 이상의 국민이 무교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

〈표 2〉 한·중·일 종교 분포

종교 \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불교	22%	18.2%	71.4%
개신교	21%	5.1%	2%
천주교	7%	-	-
이슬람교	-	1.8%	-
민속종교(신도)	-	21.9%	83.9%
기타	0%	0.9%	7.8%
무교	50%	52.2%	-

자료: 한국(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중국(CIA, 2016.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 일본(CIA, 2016.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ja.html>).

참고: 일본의 경우 민속종교와 불교를 같이 믿는 신자의 수가 많아 전체 퍼센트가 100%를 초과함.

인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불교, 민속 종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무교인 경우도 적지 않게 비중을 차지하여 서구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종교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서구의 경우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우 개신교의 급격한 팽창과 대형 교회의 등장, 일본인의 신도에 대한 강한 믿음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종교집단을 배척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종교가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역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종교적 멤버십,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믿음의 정도, 종교 의식에 참석하는 빈도 수 등의 세부요인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 방법론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세계 태도 조사(Global Attitudes Survey)’를 활용하였다.³ 이 조사는 전화 및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무슬림에 대한 태도로서 “선생님께서서는 무슬림에 대해 매우 선호하는지, 어느 정도 선호하는지, 어느 정도 선호하지 않는지, 전혀 선호하지 않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무슬림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도록 코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박탈이론의 적실성을 검토하고자 국가의 현재 경제상황, 국가의 미래 경제상황 변수를 사용하였다. 국가 현재 경제상황 변수의 경우 “현재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매우 좋다, 약간 좋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1 = “매우 나쁨”, 2 = “약간 나쁨”, 3 = “약간 좋음”, 4 = “매우 좋음”). 국가의 미래 경제상황 변수는 “12개월 이후 국가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1 = “많이 나빠질 것이다”, 2 =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4 = “약간 나아질 것이다”, 5 = “많이 나아질 것이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 변수들 모두 응답점수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종교 관련 변수로는 종교 멤버십, 기도 횟수, 종교의 중요성, 종교 의식 출석 변수를 활용하였다. 종교 멤버십 변수는 각 나라의 종교 현황⁴에 따라 더

3. 좀 더 최근의 자료를 찾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기관의 서베이는 2010년 ‘세계 태도 조사(Global Attitudes Survey)’가 유일하였다. 다른 서베�허들은 3국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 질문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미변수를 다르게 생성하였다. 기타 종교와 무교를 합하여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한국과 중국의 경우,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더미변수로, 일본은 불교, 개신교, 신도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퓨리서치 센터의 ‘세계 태도 조사 2010’ 데이터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의 특성에 따라 조사가 되지 않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도 횟수, 종교의 중요성, 종교 의식 출석 관련한 질문항이 있으나, 중국의 경우 관련한 설문항이 없어서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기도 횟수 변수는 “종교행사 외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1 = “전혀 하지 않는다”, 2 = “일주일에 1회 이하”, 3 = “일주일에 몇 번”, 4 = “하루에 한 번”, 5 = “하루에 여러 번”). 종교의 중요성 변수의 경우 “선생님의 삶에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를 묻는 문항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 “많이 중요하지 않다”, 3 = “약간 중요하다”, 4 = “매우 중요하다”), 종교 의식 출석 변수는 “결혼이나 장례를 제외하고 얼마나 많이 종교 의식에 참석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1 = “전혀 안 함”, 2 = “드뭥”, 3 = “일 년에 몇 번”, 4 = “한 달에 한두 번”, 5 = “일주일에 한 번”, 6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통제변수로써 여성의 평등한 권리보장에 대한 의견과 정치 관련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성의 평등한 권리보장에 대한 의견 변수는 소수자로서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가 또 다른 소수자 집단인 여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변수를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선생님께서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0 = “가지지 않아야 한다”, 1 = “가

4. 본 연구가 사용한 여론조사 자료의 응답자의 종교 분포 현황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다. 한국은 무교 43.7%(307명), 개신교 27.8%(195명), 불교 20.4%(143명), 가톨릭 7.7%(54명), 기타 0.4%(3명)이다. 중국은 무교 82.3%(2,621명), 불교 14.7%(469명), 개신교 2.0%(63명), 가톨릭 0.3%(11명), 도교 0.3%(10명), 이슬람 0.2%(6명), 전진교 0.1%(3명)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무교 53.6%(372명), 불교 41.2%(286명), 신도교 3.0%(21명), 개신교 1.6%(11명), 기타 0.6%(4명)이다.

져야 한다”로 코딩하였다. 둘째, 여성의 일할 권리 변수는 “선생님께서서는 여성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문항의 응답범주는 1 = “매우 동의함”, 2 = “대체로 동의함”, 3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 =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다. 셋째, 직업에 있어서 남성이 가지는 우선권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께서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범주는 사회에서 여성이 일할 권리 변수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측면에서 “선생님께서서는 대학교육이 소녀보다 소년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1 = “매우 동의함”, 2 = “대체로 동의함”, 3 =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 =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다. 여성의 권리 관련한 네 문항은 모두 응답이 숫자가 커질수록 여성의 권리 보장에 대해 긍정적이 되도록 코딩하였다.

다음으로는 정치 관련 변수로써 한, 중, 일 각 국가의 정당일체감을 살펴 보았다. 무슬림에 대한 태도는 각 나라의 정당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정당일체감이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Carsey and Layman, 2006; Greene, 1999; 2004; Jacoby, 1988; Johnston, 2006; Koch and Sullivan,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나라 국민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는 선호와 지지가 무슬림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정당일체감을 통제 변수로써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국의 경우 일당제로 공산당만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서는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0 = “아니다”, 1 = “그렇다”의 더미변수로 만들어 정당일체감을 측정하였다. 한편 일본과 한국의 경우 주요 두 정당에 대한 선호를 살펴 보았다. 일본은 “오늘 선거가 열리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여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 LDP)과 민진당(Democratic Party of Japan, DPJ)에 각각 응답한 것을 더미변수로 0 = “해당 정당 지지하지 않음”, 1 = “해당 정당 지지”로 코딩하였다. 한국은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당, 민주 노동당 등 많은 정당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여 당시 주요 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응답을 각각 0 = “해당 정당 지지하지 않음”, 1 = “해당 정당 지지”의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또한 국가만족도 변수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은 0 = “만족함”, 1 = “불만족함”으로 응답의 숫자가 높을수록 불만족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 일본과는 달리 민족성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도 사용하였다. “선생님께서 어떤 민족에 속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은 0 = “다른 민족”, 1 = “한족”으로 코딩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다수 민족인 한족일수록 무슬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로써 성별(0 = “여성”, 1 = “남성”), 연령, 교육, 직업, 소득, 결혼여부(0 = “미혼”, 1 = “기혼”) 변수를 포함하였다. 교육 변수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선생님께서 마친 최고 수준의 교육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⁵ 직업 변수의 경우 “현재 귀하의 취업 형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⁶ 소득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1년

5. 한국은 1 = “정규교육 받지 않음”, 2 = “초등학교 미졸업”, 3 = “초등학교 졸업”, 4 = “중학교 미졸업”, 5 = “중학교 졸업”, 6 = “고등학교 미졸업”, 7 = “고등학교 졸업”, 8 = “전문대 및 대학 미졸업”, 9 =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으로 응답이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응답범주는 1 = “유치원”, 2 = “초등학교”, 3 = “중학교”, 4 = “고등학교 혹은 기술학교(high school or technical secondary school)”, 5 = “대학”, 6 = “학사 학위”, 7 = “석사 학위”, 8 = “박사 학위”, 9 = “정규교육 받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은 1 = “정규교육 받지 않음”, 2 = “중학교 미졸업”, 3 = “중학교 졸업”, 4 = “고등학교 미졸업”, 5 = “고등학교 졸업”, 6 = “기술학교 재학”, 7 = “기술학교 미졸업”, 8 = “기술학교 졸업”, 9 = “단기대학 재학”, 10 = “단기대학 미졸업”, 11 = “단기대학 졸업”, 12 = “대학 재학”, 13 = “대학 미졸업”, 14 = “대학 졸업”, 15 = “대학원 재학”, 16 = “대학원 미졸업”, 17 = “대학원 졸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6. 한국과 일본의 응답 범주는 1 = “정규직”, 2 = “아르바이트”, 3 = “연금수급자이며 취업 상태”, 4 = “자영업자”, 5 = “연금수급자이며 미취업상태”, 6 = “미취업 상태이며 정부에서 받는 혜택 없음”, 7 = “미취업 상태이며 정부에서 지원 받음”, 8 = “무직이며 출산 또는 장애에 대한 정부 지원 받음”, 9 = “무직(주부, 학생 등)”으로 코딩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10 = “농부”라는 응답 범주가 추가적으로 존재했다.

가계 소득을, 한국의 경우 월별 소득을 사용하였다.⁷

IV.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3〉 참조). 한국의 경우, “약간 싫어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약간 좋아함”, “매우 싫어함,” 그리고 “매우 좋아함”이 뒤따랐다. 중국인들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이 “약간 싫어함”이었으며 48.2%로 한국보다는 약 3% 적었다. 그 뒤를 “매우 싫어함”과 “약간 좋아함”, “매우 좋아함”이 뒤따랐다. 일본인들 역시 “약간 싫어함”이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좋아함”, “매우 싫어함”, “매우 좋아함”의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매우 싫어함”과 “약간 싫어함”을 합친 응답비율을 살펴보았더니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66.6%, 78.8%, 72.8%로 나타나, 중국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본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세 나라 중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 나라 모두 무슬림을 싫어한다는 응답이 모두 6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중국, 일본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7. 한국의 응답범주는 1 = “99만 원 이하”, 2 = “100만 원~149만 원 이하”, 3 = “150만 원~199만 원 이하”, 4 = “200만 원~249만 원 이하” … 10 = “500만 원~599만 원 이하”, 11 = “600만 원~699만 원 이하”, 12 = “700만 원~799만 원 이하”, 13 = “8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단위는 엔으로 응답범주는 1 = “100만 엔 이하”, 2 = “100~200만 엔”, 3 = “200~300만 엔”, 4 = “300~400만 엔” … 10 = “900~1,000만 엔”, 11 = “1,000~1,200만 엔”, 12 = “1,200~1,500만 엔”, 13 = “1,500~2,000만 엔”, 14 = “2,000만 엔 이상”이다. 중국의 응답범주는 위안화를 단위로 하여 1 = “500위안 이하”, 2 = “501~1,000위안”, 3 = “1,001~2,000위안”, 4 = “2,001~3,000위안” … 19 = “80,001~100,000위안”, 20 = “100,001~115,000위안”, 21 = “115,001~150,000위안”, 22 = “150,000위안 초과”로 나누어져 있다.

〈표 3〉 한·중·일 무슬림에 대한 태도 응답 분포

	국가			전체	카이제곱
	한국	중국	일본		
매우 싫어함	87	771	123	981	$\chi^2=114.531,$ $df=6, p<0.01$
	14.7%	30.6%	21.7%	26.7%	
약간 싫어함	307	1214	290	1811	
	51.9%	48.2%	51.1%	49.2%	
약간 좋아함	193	455	142	790	
	32.6%	18.1%	25.0%	21.5%	
매우 좋아함	5	79	13	97	
	0.8%	3.1%	2.3%	2.6%	
전체	592	2519	568	3679	
	100.0%	100.0%	100.0%	100.0%	

순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 권리 보장, 정당일체감, 소득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대학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과 정당일체감을 가질수록 무슬림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하였다.

중국의 경우 현재의 경제상황, 여성 권리, 개신교, 국가만족도, 민족성, 교육, 소득 변수가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만족할수록, 개신교일수록, 한족일수록,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또한 여성 권리 보장에 반대할수록, 국가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국가의 미래 경제상황, 여성권리, 종교 중요성, 정당일체감, 연령, 교육 변수가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들은 국가의 미래 경제상황에 부정적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장에 동의할수록, 종교를 중요시할수록,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중국	일본
국가 경제	현재 경제상황	0.021 (0.219) ^{a)}	0.158* (0.087)	0.109 (0.187)
	미래 경제상황	0.173 (0.163)	0.111 (0.072)	-0.353** (0.151)
여성 권리	여성의 평등한 권리보장	-0.424 (0.545)	-0.257 (0.212)	0.445 (0.446)
	사회에서 여성이 일할 권리	-0.253 (0.223)	-0.225*** (0.071)	-0.044 (0.214)
	직업에 대한 여성 우선권	-0.094 (0.134)	-0.026 (0.047)	0.495*** (0.136)
	소녀의 대학교육 중요성	0.394** (0.156)	-0.326*** (0.045)	0.480*** (0.132)
종교	불교	0.308 (0.387)	0.042 (0.116)	-0.024 (0.257)
	개신교	0.171 (0.497)	0.514* (0.265)	-
	가톨릭	0.617 (0.611)	-	-
	신도	-	-	-0.897 (0.685)
	기타 종교	-	0.541 (0.839)	-
	기도 횟수	0.159 (0.135)	-	-0.107 (0.121)
	종교중요성	-0.119 (0.214)	-	0.363** (0.173)
	종교의식 출석	-0.142 (0.140)	-	-0.124 (0.125)
정치	정당일체감_공산당 가입 여부	-	0.094 (0.159)	-
	정당일체감_자민당(LDP)	-	-	1.020*** (0.309)
	정당일체감_민주당(DPJ)	-	-	0.540* (0.284)
	정당일체감_한나라당	-0.612* (0.321)	-	-

		한국	중국	일본
	정당일체감_민주당	-0.721** (0.332)	-	-
	국가만족도	0.353 (0.316)	-0.247* (0.130)	0.149 (0.268)
민족성		-	-0.777** (0.339)	-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0.193 (0.278)	0.003 (0.082)	-0.035 (0.244)
	연령	-0.003 (0.013)	0.005 (0.004)	-0.016* (0.009)
	교육	0.013 (0.096)	0.090* (0.047)	0.059* (0.030)
	직업	-0.035 (0.039)	0.011 (0.017)	-0.032 (0.042)
	소득	0.084* (0.047)	0.033** (0.016)	0.002 (0.040)
	결혼 여부	0.486 (0.356)	-0.131 (0.117)	-0.051 (0.266)
N		279	2265	310
Pseudo-R ²		0.105	0.051	0.211

*p<0.1, **p<0.05, ***p<0.01 a) 표준오차

V. 결론

최근에 발생한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들 중 많은 부분은 미국과 유럽 즉, 서방국가에서 발생했다. 즉, 9.11 테러부터 최근 파리테러까지 많은 사건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서방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테러 세력들은 스스로를 무슬림이라 주장하며 이슬람교 교리를 내세우며 테러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주축이 되는 서방국가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니스벳 외(Nisbet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최근의 사건들을 미국과 유럽 대 이슬람의 충돌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테러를 자행한 것은 이슬람 세력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이슬람 혐오증 (Islamophobia)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주요한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 타라스(Taras, 2013)는 서구세계와 이슬람 세계에는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에 근간한 메울 수 없는 문명의 격차가 존재하여 이것이 이슬람 혐오증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의 무장단체 지하드는 이슬람의 교리인 코란에 근거하여 이슬람의 수호와 전파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으며 (Esposito, 2015), 이들 및 소수 테러범들의 폭력적 행위들은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반(反) 이슬람 감정을 야기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12).

본 연구는 반 이슬람 감정이 서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 서구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었던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반 이슬람 정서는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세 나라 모두 무슬림을 싫어한다는 응답이 60%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나라가 이슬람에 의한 직접적인 테러의 대상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높은 수치의 반 이슬람 정서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는 세계화의 진전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직접적인 테러의 주요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비 서구 지역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와 뉴스가 신속하게 확대된 데서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개인적 수준에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나라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슬림에 대한 태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갖는 세 나라에서도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서구 지역에서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었던 박탈이론에 기반을 두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을 때 세 나라 모두 다른 결과를 보였다. 중국과 일본만이 박탈이론의 적실성이 발견되었으나, 중국과 일본 내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인식은 서로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인의 경우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사람일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일본인의 경우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비관적일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변수로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했던 종교 변수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무슬림에 대한 태도가 아시아의 세 나라 간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본인들, 그리고 개신교인 중국인들의 경우 무슬림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종교활동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형성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통제변수로서 포함하였던 일부 변수들의 결과였다.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무슬림에 대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은 많은 연구에서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착안하여 여론조사 당시 각 나라의 주요 정당에 대한 선호가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가정하였는데 경험적 분석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한국의 정당일체감 변수의 방향이 반대로 나왔다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관되게 보였던 세 나라 간의 상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있는 세 나라이지만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각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권리 관련한 통제 변수들의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여성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무슬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여성이라는 또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호감이 소수 종교집단이 무슬림에 대한 호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과는 반대로 여성에 대한 호감이 무슬림에 대한 반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심층 분석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은 한, 중, 일 간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이런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는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로 예부

터 무역과 문화 교류를 지속했으며,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공통된 문화를 형성해왔다(邢麗菊, 2012).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한국, 일본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채택하였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인민민주주의 독재” 제도를 오늘날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Kotra, 2018). 건국 당시 중국은 이념에 집착해 왔으나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에는 국력 부상을 목표로 실리적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다(곽덕환, 2015). 한편 일본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며 아베총리가 집권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으나 2012년 자민당 정권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Kotra, 2018). 한편,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87년까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결국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돼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임재형, 2016). 이렇듯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일 세 국가의 소득, 교육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인당 GDP는 중국이 \$8,123.2, 일본이 \$38,900.6, 한국이 \$27,538.8로 일본, 한국, 중국 순서이다(World Bank, 2018). 하지만 GDP 성장률의 경우 2018년 기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이 6.5%, 일본이 0.7%, 한국이 3%로 중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IMF, 2018). 한편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세 국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의 성인 교육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비율에 있어 각 국가별 최근 조사결과로 볼 때 중국은 2008년 기준 9.68%, 일본과 한국은 2016년 기준 각각 50.50%, 46.86%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 즉, 25세에서 64세 인구 중 가장 상위 고등교육 수준 비율이 일본, 한국, 중국 순서인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고등교육 수준이 중국보다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의 지위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성차별 보고서 2017(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중국이 0.674로 100위, 일본이 0.657로 114위, 한국이 0.650으로 118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World Economic Forum, 2017).

이러한 여성 지위의 차이는 일본,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여성의 대한 호감이 무슬림에 대한 호감과 연결되지 않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은 더 이상 여성과 무슬림이 하나의 소수자 집단으로 인식되지 않아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무슬림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가 사용한 여론조사 자료의 응답자 종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교인 사람들이 한국 43.7%, 중국 82.3%, 일본 53.6%로 나타나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의 무교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종교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거나, 한국만은 어떠한 종교 변수도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일정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일수록 무슬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분석 결과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 국가 중 가장 적은 한국은 어떠한 종교변수도 무슬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중일 3국은 정치체제, 여성의 지위, 경제 수준 등에 인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무슬림에 대한 태도의 상이성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경제적 변수 중 교육과 소득은 무슬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 계몽을 통해 소수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각 나라의 정부들이 무슬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유용한 정책적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비 서구사회에서 반(反) 무슬림 정서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다양한 종교 집단에 대한 관용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비 서구 지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사례 선택(case selection)에서 오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박탈이론 관련 변수나 종교 변수의 설정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의 다른 비 서구 국가로의 일반화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덧붙여 사용한 데이터라 2010년에 수집된 것으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진 한계 중의 하나이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비 서구 지역에서의 무슬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투고일자: 1월 31일 심사일자: 3월 8일 게재확정: 3월 26일

참고문헌

- 고병철 외. 2011. 『한국의 종교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곽덕환. 2015.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 변화”. 『동아인문학』 31권, 535-557.
- 권지윤. 2009. “한국의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2권 2호, 53-76.
- 김수완. 2016.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7권, 193-213.
- 성연철. 2015. “IS, 첫 중국인 인질 살해…시진핑 “강력 규탄” 대응 주목.” 『한겨레』(11월 19일).
- 송한용. 2013. “위구르족의 정체성과 중국 국민통합의 괴리.”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51권 단일호, 123-158.
- 邢麗菊. 2012. “유교와 동아시아문화공동체.”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347-353.
- 안정국. 2012. “국내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문화적 갈등.”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2권 1호, 25-57.
- _____. 2015.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분화-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권 3호, 155-181.
- 이노미. 2010.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갈등 양상: 국내거주 무슬림 유학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권 3호, 5-34.
- 이세원. 2015. “일본, IS 인질사태 계기 테러정보 전담조직 창설 추진.” 『연합뉴스』(5월 29일).
- 이유주현. 2013. “한국인 3명중 1명 “이웃에 다른 인종 살면 싫다.” 『한겨레』(5월 17일).
- 이희수. 2006. “9.11 테러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6권 1호, 237-254.
- 임재형. 2016. “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4권 2호, 109-136.
- 조희선. 2008.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논총』 29권, 31-66.
- 조희선·김대성·안정국·오종진·김효정·유왕중. 2010. “코슬림(Koslim: 한국 이주 무

- 슬림 2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 1호, 277-308.
- 지중화. 2011. “다문화 사회와 한국무슬림의 적응과 대응.”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1권 2호, 55-98.
- 최재훈. 2011. “중동과 중국 국제관계.” 『중동연구』 30권 3호, 197-217.
-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2008. 『Islam in Korea』. 서울: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 황병하. 2009. “신장의 이슬람역사와 중국의 대 이슬람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30권 1호, 107-140.
- _____. 2010. “위구르족, 회족 무슬림의 정체성과 문화접변 양상.” 『한국중동학회논총』 30권 3호, 223-256
- _____. 2013. “중국 무슬림의 종교적 정체성과 인권 침해.” 『한국중동학회논총』 33권 3호, 133-167.
- Kotra. 2018. 『국가정보, 일본』.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3>
- _____. 2018. 『국가정보, 중국』.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3>
- 文化庁 文化部 宗務課. 2015. 宗務時報
- 店田 廣文, 2013. 이슬람교도인구의 추산
- Allport, Gordon W., and Bernard M. Kramer. 1946. “Some Roots of Prejudice.” *The Journal of Psychology*, 22(1), 9-39.
- Anis, B. 1998. “The Emergence of Islam and the Status of Muslim Minority in Japan.”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18(2), 329-345.
- Amnesty International. 2012. *Choice and Prejudice: Discrimination against Muslims in Europe*.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 Beatty, Kathleen Murphy, and Oliver Walter. 1984. “Religious Preference and Practice: Reevaluating their Impact on Political Tolera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8(1), 318-329.
- Carsey, T. M., and Layman, G. C. 2006. “Changing Sides or Changing Minds? Party Identification and Policy Preferences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464-477.
- Chuah, O. 2004. “Muslims in China: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Hui Chinese.”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24(1), 155-162.
- CIA. The World Factbook. 201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검색일 2017.01.14.).
- Ciftci, Sabri. 2012. “Islamophobia and Threat Perceptions: Explaining Anti-Muslim Sentiment in the West.”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2(3), 293-309.
- Dollard, John, Leonard W. Doob, Neal E. Miller, O. H. Mowrer, and Robert R. Sears.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Edgell, Penny, Joseph Gerteis, and Douglas Hartmann. 2006. “Atheists as ‘Other’:

- Moral Boundaries and Cultural Membership in American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2), 211-234.
- Elchardus, M., and B. Spruyt. 2014. “Universalism and Anti-Muslim Senti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75-85.
- Esposito, J. L. 2015. “Islam and Political Violence.” *Religions*, 6(3), 1067-1081.
- Fathiah Fathil. 2011. “Islam in minority Muslim countries: a case study on Japan and Korea.” *World Journal of Islamic History and Civilization*, 1(2), 130-141.
- Frankel, J. D. 2016. “Chinese-Islamic Connections: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Overview.”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6(4), 569-583.
- Greene, S. 1999. “Understanding Party Identification: A Social Identity Approach.” *Political Psychology*, 20(2), 393-403.
- _____. 2004. “Social Identity Theory and Party Identific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85(1), 136-153.
- Hideki, M. 2007. “Diversity as Advantage in a “Homogeneous” Society: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Muslims in Japan.” *Shingetsu Electronic Journal of Japanese-Islamic Relations*, 157-78.
- Hood, R. W., Jr., B. Spilka, B. Hunsberger, and R. Gorsuch. 1996.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IMF. 2018. Real GDP growth.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RPCH@WEO/OEMDC/ADVEC/WEOWORLD/AUT>
- Izumi Kazue. 2015. “The Perception on the Islam in Modern Japanese Society.” *Journal of Global Culture*, 6(2), 27-38
- Jacoby, W. G. 1988. “The Impact of Party Identification on Issue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43-661.
- Johnson, Stephen. 1992. “Anti-Arab Prejudice in ‘Middletown.’” *Psychological Reports*, 70, 811-818.
- Johnston, R. 2006. “Party Identification: Unmoved Mover or Sum of Preferen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9, 329-351.
- Kalkan, Kerem Ozan, Geoffrey C. Layman, and Eric M. Uslaner. 2009. “‘Bands of Others’? Attitudes toward Muslims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The Journal of Politics*, 71(3), 847-862.
- Koch, M. T., and Sullivan, P. 2010.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Now? Partisanship, Approval, and the Duration of Major Power Democratic Military Interven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72(3), 616-629.
- Kunovich, Robert M. 2004. “Social Structural Position and Prejudice: An Exploration of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Regression Slopes.” *Social Science Research*, 33(1), 20-44.
- Lipka, Michael and Hackett, Conrad. 2015. Why Muslims are the World’s Fastest-Growing Religious Group.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4/23/why-muslims-are-the-worlds-fastest-growing-religious-group/>

- Max Fisher. 2013. A Fascinating Map of the World's Most and Least racially Tolerant Countries. *The Washington Post* (May 15).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rldviews/wp/2013/05/15/a-fascinating-map-of-the-worlds-most-and-least-racially-tolerant-countries/>(검색일: 2016..01.10)
- Nisbet, Erik C., Ronald Ostman, and James Shanahan. 2009. "Public Opinion toward Muslim Americans: Civil Liberties and the Role of Religiosity, Ideology, and Media Use." In *Muslims in Western Politics*, edited by Adbulkader H. Sinno, 161-199.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Nunn, Clyde Zirkle, Harry J. Crockett, and J. Allen Williams. 1978. *Tolerance for Nonconform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OECD. 2018. *Adult Education Level*. <https://data.oecd.org/eduatt/adult-education-level.htm#indicator-chart>
- Penn, M. 2008. "Public Faces and Private Spaces: Islam in the Japanese Context." *Asia Policy*, 5(1), 89-104.
- Pew Research Center. 2009. *Mapping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NW: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
- Slade, Shelley. 1981. "The Image of the Arab in America: Analysis of a Poll on American Attitudes." *The Middle East Journal*, 35(2), 143-162.
- Stolz, J. 2005. "Explaining Islamophobia: A Test of Four Theories Based on the Case of a Swiss City." *Swiss Journal of Sociology*, 31(3), 547-566.
- Stouffer, Samuel Andrew. 195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A Cross-Section of The Nation Speaks its Mind*. Garden City, NY: Doubleday.
- Strabac, Zan, and Ola Listhaug. 2008. "Anti-Muslim Prejudice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of Survey Data from 30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37(1), 268-286.
- Taras, R. 2013. "Islamophobia Never Stands Still': Race, Religion,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36(3), 417-433.
- Vestre, E. O. 2011. *Japan as an Emerging Multicultural Society: Exploring Contemporary Minority Issues Through the Case of Muslim Immigrants* (Master's thesis).
- Wike, Richard, and Brian J. Grim. 2010. "Western Views toward Muslims: Evidence from a 2006 Cross-Na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1), 4-25.
- World Bank. 2018. *GDP per capita (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 World Economic Forum. 2017.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 Zainiddinov, Hakim. 2013. "What Factors Account for Black-White Differences in Anti-Muslim Sentiment in the Contemporary USA?" *Ethnic and Racial Studies*, 36(11), 1745-1769.

<부록>

주요 독립변수 기초통계분석

			한국	중국	일본
국가 경제	현재 경제상황	매우 나쁨	16.9	0.3	38.7
		약간 나쁨	64.9	7.7	50.0
		약간 좋음	17.8	72.3	10.7
		매우 좋음	0.4	19.6	0.6
	미래경제상황	더 나빠질 것	3.0	0.2	7.5
		조금 나빠질 것	14.4	1.2	24.1
		그대로 일 것	42.1	10.4	53.0
		조금 좋아질 것	38.2	65.4	15.2
		많이 좋아질 것	2.3	22.8	0.1
종교	불교	불교 아님	79.7	85.6	59.1
		불교임	20.3	14.4	40.9
	개신교	개신교 아님	72.4	98.1	-
		개신교임	27.6	1.9	
	가톨릭	가톨릭 아님	92.4	-	-
		가톨릭임	7.6		
	신도	신도 아님	-	-	97.0
		신도임			3.0
	기타 종교	기타 종교 아님	-	99.6	-
		기타 종교임		0.4	
	기도 횟수	전혀 안 함	50.1	-	39.9
		일주일에 한 번 이하	19.0		23.5
		일주일에 몇 번	8.6		8.6
		하루에 한 번	7.9		19.5
		하루에 몇 번	14.4		8.6
	종교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27.9	-	25.3
다소 중요하지 않음		28.6	37.6		
다소 중요함		24.3	25.9		
매우 중요함		19.3	11.2		
종교서비스	전혀 안 함	37.0	-	17.3	

			한국	중국	일본
	출석	거의 안 함	18.0		22.6
		일년에 몇 번	11.2		42.9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6.7		12.7
		일주일에 한 번	16.6		2.3
		일주일에 한 번 초과	10.5		2.1
여성 권리	여성평등 권리보장	되어서는 안 됨	5.4	3.9	9.0
		되어야 함	94.6	96.1	91.0
	사회에서 여성이 일할 권리	매우 동의함	65.2	42.6	65.3
		대체로 동의함	31.6	54.1	29.9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7	2.6	4.3
		전혀 동의하지 않음	0.4	0.6	0.4
	직업에 대한 남성 우선권	매우 동의함	24.4	28.1	10.8
		대체로 동의함	35.9	43.9	28.8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7.6	22.1	37.3
		전혀 동의하지 않음	12.1	5.9	23.1
	소녀보다 소년에게 대학교육이 더 중요함	매우 동의함	7.2	12.6	10.1
		대체로 동의함	20.8	36.4	24.1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8.1	31.7	37.3
전혀 동의하지 않음		23.9	19.2	28.6	
정치	정당일체감 _공산당 가입여부	가입 안 함	-	92.2	-
		가입함		7.8	
	정당일체감 _자민당(LDP)	없음	-	-	67.9
		있음			32.1
	정당일체감 _민주당(DPJ)	없음	-	-	61.4
		있음			38.6
	정당일체감_ 한나라당	없음	55.4	-	-
		있음	44.6		
	정당일체감_ 민주당	없음	65.7	-	-
		있음	34.3		
	국가만족도	만족함	21.6	88.7	22.2
		불만족함	78.4	11.3	77.8

		한국	중국	일본	
민족성	다른 민족	-	1.3	-	
	한족		98.7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여성	50.0	50.7	50.9
		남성	50.0	49.3	49.1
	연령		40.04세	39.89세	48.65세
	교육	초등 이하	5.0	10.6	0.0
		고등 이하	45.9	72.2	56.8
		대학 이상	49.1	17.2	43.2
	결혼 여부	기타	35.7	14.3	35.3
		결혼함	64.3	85.7	64.7

Comparative Analysis on Attitudes toward Muslim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oiok Jeong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attitudes toward Muslims i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research topic requires empirical and systematic analysis because of first, the increasing attention to Muslim around the world, second, the limited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literature focusing only on Western countries, and lastly, the importance of Muslim issues in Asia in the 21 century. Utilizing the 2010 Global Attitudes Survey conducted by the Pew Research Center, this study confirmed that anti-Muslim attitudes were widespread in Asian region. Over 60% of respondents in the three countries of examination responded that they did not like Muslims. In addition,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common variable that influenced the attitudes toward Muslims all in the three countries. This result indicated that attitudes toward Muslims were mostly influenced by different factors in differing countries despite of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and cultural similarity.

Keywords: Mulsim, attitudes toward Muslims, South Korea, Japan, China, Islam